

“죽기를 각오했다”...여장부, 항일무장투쟁 선봉서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日 괴뢰국 만주국 하얼빈 거리에서 경찰 의심 피하려 초라한 행색으로 끝내 붙잡혔지만 단식 투쟁으로 석방 죽으며 “사람 죽고 사는 건 정신 문제” 일본 총독 사이토마코토 암살 계획도



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

1933년 2월27일 오후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의 최대 도시 하얼빈의 도외정암가 거리. 우스스한 날씨에 종종걸음을 치는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모자를 눌러쓴 한 여인이 걸고 있었다. 다 해진 옷을 걸쳐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은 결기로 빛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경찰이 요란하게 호각을 불어댔다. 몇 차례 총성이 울린 뒤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쓰러진 여인은 당황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의병 활동을

벌이다 전투 중 사망한 남편의 피 묻은 군복을 입은 채였다. 다가올 모진 고문을 환히 알면서도 초연하게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이는 조선의 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이었다. 만주에 파견된 일본전권대사 무토노부요시(武藤信義)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여 만에 거사를 치르려다 붙잡힌 것이다. 그의 나이 61세였다.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혼례를 올렸던 시대상을 감안하

면 증조할머니별인 나이였다. 그해 3월1일은 만주국 수립 첫돌이었다. 성대한 기념식에 참석 예정인 무토노부요시를 죽여 독립운동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는 게 남자현의 목표였다. 정해진 장소에 붉은 천이 휘날리면 무기가 든 상자를 건네받아 홀로 무토노부요시를 처단하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배신을 했는지 무기를 받으려 가던 길에 일본 경찰이 급습해버렸다.



수감된 남자현은 곡기를 끊어버린다. 60대 노파가 고문과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자 일본 경찰은 부랴부랴 그를 석방했다. 오랫동안 추운 만주 지방에서 거친 독립운동을 해온 그의 몸은 끝내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사망을 전한 조선중앙일보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던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 식사를 권하는 가족에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아들과 손자에게 중국돈 약 200원을 건네며 “이 중 200원은 조선이 독립되는 날 정부에 독립축하금으로 바치고 남은 돈은 손자들을 교육하는데 쓰라”고 당부했다. “독립은 정신이다”란 말도 남겼다. 무토노부요시 암살 계획은 그의

첫 의거가 아니었다. 기록마다 시기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26년께 그는 일본 총독 사이토마코토(齋藤實)를 죽이려고 했다. 사이토마코토는 사상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 문화에 동화시키자는 문화통치를 내세운 인물이다. 문화통치는 3·1운동을 보고 화들짝 놀란 일본이 내세운 정책으로 친일파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사회를 분열시키는 사이토마코토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남자현은 아들 김성삼에게 “나라가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 나라의 혼을 말살하는 이의 목숨을 끊어 조선을 부흥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심은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조선인의 암살 시도로 무산됐다.

일본인의 농기구 가게에서 일하던 송화선(1897~1927)이 1926년 4월28일 경성부회 평의원(京城府會評議員)들이 탄 차를 사이토마코토의 차로 오인하고 그 안으로 뛰어올라 평의원들을 살해했다. 이 때문에 사이토마코토의 경호가 강화, 남자현도 경찰의 감시 대상에 올라 자유롭

게 행동할 수 없었다. 송화선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고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남자현은 세 차례 손가락을 자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20년대 만주에서 여러 갈래 독립단체들이 분열하자 그는 손가락을 잘라 통합을 호소했다. 1920년 8월29일 국지기념대회에서 왼손 엄지를 베어 그 피로 혈서를 써 넣었고 1922년 3월 독립군끼리 충돌하자 검지를 잘랐다.

또 60세를 맞은 1932년 9월19일, 하얼빈을 방문한 국제연맹조사단장 리튼에게 전달하기 위해 왼쪽 엄지 두 마디를 잘라 ‘대한독립원’이란 다섯 글자를 썼다.

당시 일본이 만주를 중국 침략의 군사 기지로 만들려고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우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다. 국제연맹은 이같은 비난 여론을 고려해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남자현은 이 국제연맹조사단에게 혈서를 전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혈서를 썼다. 한 인력거꾼에게 돈을 주며 명주차마에 싣 혈서를 리튼 단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일본 경찰의 검문에 걸려 실패했다.

남자현은 누구...사대부 며느리→47세에 만주투사로

무장투사 남자현(1872~1933)은 1872년 경상북도에서 1남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안동시와 영양군으로 혼기에 있지만 여러 연구자료들을 종합할 때 영양군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추정된다. 국내 여성 독립운동가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았지만 남자현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의 죽음을 전한 당시 언론 기사와 후손들의 증언이 전 부다.

〈남자현 평전〉(이상국 지음)에 담긴 친정의 종손(오빠의 손자) 남재각씨의 인터뷰를 보면 재각씨는 “만주에서도 늘 쫓겨 다니던 사람이라 자취를 다 지우고 다녔던 듯하다. 우리들은 선생(남자현)의 물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몰랐고 그저 살기에 바빠서 불필요한 것들은 생각 없이 버렸다”고 회상한다.

남겨진 소중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고 일본 수뇌부의 암살을 계획한 그녀였지만 당시 전통적인 여인상도 삶의 일부였다.

아버지 남정환은 문하에 70여 명의 제자를 두고 지역에서 교육자로

활동했다. ‘독립혈서’의 ‘남자현여사 약전’에 따르면 남자현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문에 매진하며 총명함을 보였다.

19세엔 아버지의 제자였던 11살 연상의 김영주와 결혼했다. 남편은 1896년 7월11일 진보군 진보면 흥구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아들 김성삼을 임신한 상태에서 맞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후 20대, 30대 그의 삶은 봉건적인 여인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추측된다.

47세가 된 1919년 2월말 그는 서울로 거처를 옮겨왔다.

당시 기준으로 ‘할머니’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47세의 남자현이 어떤 마음으로 이같은 결심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결단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 민족이 들끓듯이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후 남자현은 민주로의 이주를 결심한다. 그는 아들 김성삼에게 “절벽거린 역사를 청산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망명한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러 간

다. 지금까지의 남자현은 잊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만주에서의 활동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남자현은 남성 독립운동가들을 막고 입히는 지원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총칼을 휘두르려고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다. 호걸다운 기개를 보여주는 일화가 잡지 〈부흥〉 1948년 12월호 기사에 실렸다. 조선인으로서 자신을 심문하려 한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다.

“왜적들은 선생을 붙잡으려고 대 활동을 개시했는데 선생이 호탄현 지방을 지나다가 흥순이라는 지에게 걸렸다. 선생은 그를 향해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이같이 수천 리 타국에서 애쓰는 것은 그대와 나의 조국을 위한 것이거늘 그대는 조상의 피를 받고 조국의 강토에서 자라나서 어찌 이같은 반역의 죄를 행하느냐? 흥순이는 심장과 골수를 찌르는 선생의 일언일구에 감동해 잘못을 사과하고 도리어 갈 길을 인도해 예비 70원을 내어드렸다.”

1927년 길림대검거사건(吉林大檢擧事件)을 계기로 벌인 안창호 구명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중국 군대가 안창호 등 만주에 기거하던 조선의 독립운동가 약 5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가 중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자 모두 풀어준 사건이다. 당시 남자현은 상해 임시정부에 연락해 사태를 알려 석방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독립운동사에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은 것은 두 차례의 암살 시도와 세 차례의 혈서다. 그는 일본 총독 사이토마코토(齋藤實)에 이어 만주에 파견된 일본전권대사 무토노부요시(武藤信義)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 또 하얼빈을 방문한 국제연맹 조사단장 리튼에게 ‘대한독립원’이라고 쓴 혈서를 전달하기 위해 왼쪽 엄지 두 마디를 잘랐다.

남자현은 무토노부요시 암살 계획이 탄로 나 일본 경찰에 붙잡혀 단식 투쟁을 하다가 61세 일기로 끝내 숨졌다. 중국 하얼빈 남강외인묘지에 묻혔다고 알려졌지만 일대 개발로 외국인 무덤이 이장되면서 유해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기사는 아래와 같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전했다.

“1934년의 일이었다. 차마 속에 무기를 감추고 왜신(무토노부요시)을 제거하고자 숙소인 영사관 구내에까지 당도했지만 거사 일보 직전에 불행히도 탐정의 밀고로 무기는 압수되고 여사는 감방에 갇힌 몸이



무등대장 모살범, 남자현(여) 遂 別世, 단식으로 극도로 쇠약한 결과, 22일 하얼빈에서 >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27일 기사.

되고 말았다. 여사의 호련한 자세는 당시엔 임장한 왜경찰들도 탄복했다. 옥중에서 여사가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출소 조치된 이

후 1934년 8월22일 마침내 투사 남자현은 세상에서 고요히 잠이 들었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